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정규(韓正奎)**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시험불안의 두 국면인 시험준비불안과 시험도중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1,2,3학년 568명을 대상으로 시험불안 척도(Anxiety Responses in Testing Scale: ARTS),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 부모의 과보호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는 여고생의 시험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들은 시험도중불안 보다 시험준비불안을 더 높게 지각했으며 특히, 시험준비불안의 하위 요인 중 인지를 가장 높게 지각했다. 셋째,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들은 시험준비불안 보다 시험도중불안을 높게 지각했으며 특히, 시험도중불안의 하위 요인 중 심체를 가장 높게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들의 시험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여고생들의 시험불안 시기 및 원인에 대한 탐색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성취압력의 형태가 아니라 여고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습관여가 필요하며, 시험도중과 시험준비 상황에 따라 인지적 요소와 심체적 요소를 여고생들이 다르게 지각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려한 시험불안 감소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개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시험불안, 학업성취압력, 과보호

* 본 논문은 한정규(2014)의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한정규,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BK플러스 교육디자인연구소사업단 연구원 / (609-75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 E-mail: hanclan@empal.com

I. 서론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통념을 지니게 되었다(박재현, 2003; 정아현, 강민주, 2014). 특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대비해 매년 수차례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성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송동호, 1999; 이은영, 현명호, 2011; 정미경, 2000), 다른 학령의 학생들보다 시험불안을 높게 경험한다(이수진, 1997; 이유미, 2016; 이유미, 정주리, 2015).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시험불안을 높게 경험할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이 유발되어 학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학업성적이 낮아져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자아정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야기되기도 한다(정미경, 2000; 최혜정, 2007).

시험불안을 높이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교육을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학업성취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시험불안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노치경, 황성훈, 2013; 박유미, 임영진, 2015; 이유미, 2016;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즉, 학업성취를 가장 중요한 결과지표로 여기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자신의 능력 이상의 압력으로 지각했을 때, 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오정희, 2012; 홍은자, 2001). 반면 고등학생들은 자기효능감, 탄력성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높아지는 시험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노치경, 황성훈, 2013; 조수용, 2015). 그러나 석민정(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높은 과보호적 양육행동 환경에서 성장한 고등학생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지 못한 경험으로 의존적 태도가 형성되었으며 시험불안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여 시험불안을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한다면 불안을 통제하는 능력이 낮아져 시험불안을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박나래, 정익중, 2012; 송지은, 2015).

학생들이 시험불안을 지각하는 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시험불안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숙, 1990; 김현진, 2006; 김희진, 2009; 성종호, 이영식, 이길홍, 1999), 시험불안을 통제하는 능력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김현진, 2006; 박지현, 2006). 따라서 높은 시험불안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 학습 동기 감소, 낮은 성취 수준, 부정적 자기 개념, 시험

거부와 같은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 보다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박병기, 임신일, 2010; 김현진, 2006; 최혜정, 2007; Gregory & Samantha, 2006). 이처럼 여고생이 시험불안을 더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해당 연구들도 시험불안 제거에 대한 연구(주길선, 2011), 시험불안의 부정적 행동결과를 제시하는 연구(김도균, 2001) 정도이다. 또한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조진희, 1998)와 같이 시험불안 원인의 다양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시험불안을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들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를 지각하는 정도와 시험불안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여고생들의 시험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학생 상담의 토대를 마련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과 학부모 상담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고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과보호는 시험불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여고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인 관심이나 성취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압력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학습, 과제확인, 시험준비 상황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의미한다(강영철, 2003). 학력이 계층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사회분위기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높은 기대를 유발한다(박아청, 1998; 송지은, 2015). 이러한 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 기대 등과 같은 교육적 열의를 자녀들은 학업성취압력으로 지각할 수 있다(오정희, 2012).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는 자신의 좌절된 욕망의 투사이며 일종의 과잉기대증후군으로 자녀에게 성공지향적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압력을 줄 수 있다(박수자, 199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특정한 수준을 넘어 서면 자녀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황상미, 정현희, 2012; Gregory & Samantha,

2006). 오정희(2012)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높은 시험점수를 기대하거나 성적에 대해서 높은 성취를 요구하며 성적 결과에 따라서 물리적 보상, 꾸중, 체벌 등의 외재적 통제를 가한다고 지각하면 심리적 압력을 느낀다. 즉, 부모들이 자녀가 시험점수를 항상 높게 받기를 기대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러한 기대를 성취압력으로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시험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경옥, 1992; 오정희, 2012; 정중희, 정현희, 이귀숙,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압력을 학생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부응해야한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압력으로 정의한다.

2. 부모의 과보호

Parker(1983)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의존성 조장, 자녀를 아기 취급 하기, 독립적 행동 방해하기 등의 구성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으며, 박아청(1998)은 선행 연구를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과보호란 수용적이면서도 간섭적이고, 관심이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즉, 과보호란 부모가 불안과 염려를 느껴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게 자녀가 할 일을 과도하게 대신해 주거나 자녀의 행동을 통제,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송지은, 2015).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행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여 자녀가 자율성을 키우는 것을 방해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경미, 윤성연, 2015).

과보호적 부모는 자신들의 양육에 대한 신념 때문에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지나치게 기대한다(정은영, 2008). 이러한 과보호적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를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불안이나 우울증상을 유발시킨다고 보고되었다(석민정, 2014; Nelson, Padilla-Walker, Nielson, 2015). 김혜영(2000)은 부모의 과보호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과잉 간섭요인은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Bögels와 van Melick(2004)도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즉, 불안과 관련된 양육태도에는 자율성-과보호, 수용과 지지-비난과 거부의 두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부모의 과보호차원이 아동의 불안 유지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통제하면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부정적인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지각하여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kel, Bögels & Thomasse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잉 간섭 및 과잉 통제를 부모의 과보호로 정의한다.

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과보호의 관계와 여고생 시험불안의 관계

시험불안은 개인의 특성과 가정, 학교, 개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시험결과에 따른 사회적 인정, 비교집단의 영향 등의 주변 환경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고 발달된다(최미라, 2004).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 시험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이나 시험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 환경적 분위기와 가정환경(표경선, 안도희, 2006),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김문주, 이해성, 1991, 송지은, 2015;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09; 조형운, 2013).

한국은 입시에 대한 높은 경쟁과 체면을 중시하는 풍토가 결합되어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분신 또는 소유대상으로 생각하며(성은모 외, 2013, 이지선, 2015)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자녀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정은영, 2008). 특히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서 우수한 학업성취결과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바람을 자녀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으로 지각하여 학습과 시험에 대한 불안을 높게 경험하기도 한다(강선모, 심혜숙, 2010; 강영철, 2003; 오정희, 2012;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09; 조형운, 2013).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분신 또는 소유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부모-자녀 간의 연대감 및 일치감을 강조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헌신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이지선, 2015). 이러한 가족주의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학업을 위한 통제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밀착 수용 태도가 결부되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박나래, 정의중, 2012; 박아청, 1998).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라는 양육행동에 상호영향을 미치고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들은 성취결과로만 평가하는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거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이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발달하게 된다(최미라, 2004). 또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성장한 여고생들은 발달과정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지 못하고(전숙영, 2012) 청소년의 심리사회에 부적응적 태도와 의존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시험장면에서 불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석민정,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상호작용하여 여고생은 이를 통제적인 양육행동으로 지각하며 이를 높게 지각할수록 시험불안을 높게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4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고등학생 전체 학년(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학교 담당선생님께 조사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하고 모두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71부가 회수되었으며, 모두 같은 번호를 선택한 2부와 14개의 문항을 선택하지 않은 1부, 이렇게 3부를 제외하고 총 568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을 살펴보면, 고1이 238명(41.9%), 고2가 227명(40.0%), 고3이 103명(18.1%)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시험불안 척도

여고생 각 개인의 시험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박병기, 임신일, 김어진(2008)이 제작한 시험불안 척도(Anxiety Responses in Testitng Scale: ARTS)를 사용하였다. ARTS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모두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하위영역에 따라 시험준비 불안과 시험도중 불안의 두 가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맥락은 '염려'와 '혼란'의 인지적 요소, '소심'과 '회피'의 정의적 요소, '생리증상'과 '행동증상'의 심체적 요소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확실히 아니다(1점) ~ 확실히 그렇다(6점)'까지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47점에서 282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시험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시험불안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에서 시험준비의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모두 .94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시험도중의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93, .93, .94로 나타났다.

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영철(2003)이 개발하고 방숙진(2010)이 수정한 학업성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

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성적이다.’와 같이 여고생이 지각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심리나 압력수준을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는 모두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 사이에 분포하며,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다.

3) 과보호 척도

정은영(2008)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은영(2008)의 부모 과보호 척도는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분리 불안의 5개 하위요인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지나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 생활에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와 같이 여고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수준을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척도는 모두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과보호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하위요인 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과잉기대 .80, 과잉간섭 .79, 밀착통제 .73, 투사적 과보호 .71, 자녀분리불안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시험불안,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과보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치를 구하였다. 각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부모의 과보호가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과보호 및 시험불안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 및 시험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시험불안($r=.40,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시험준비 불안($r=.40, p<.01$)과 시험준비 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가지면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시험도중 불안($r=.37, p<.01$)과 시험도중 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과보호는 시험불안($r=.40,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시험준비 불안($r=.36, p<.01$)과 시험준비 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시험도중 불안($r=.37, p<.01$)과 시험도중 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568$)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학업성취압력	-										
2.과보호	.59*	-									
3.시험불안(전체)	.40*	.40*	-								
시험 준비 불안	4.인지	.35*	.22*	.76*	-						
	5.정의	.36*	.29*	.80*	.68*	-					
	6.심체	.28*	.35*	.81*	.45*	.45*	-				
	7.전체	.40*	.36*	.96*	.83*	.86*	.78*	-			
시험 도중 불안	8.인지	.34*	.36*	.87*	.68*	.63*	.59*	.76*	-		
	8.정의	.37*	.38*	.87*	.62*	.78*	.56*	.79*	.76*	-	
	10.심체	.26*	.36*	.79*	.40*	.42*	.85*	.69*	.60*	.55*	-
	11.전체	.37*	.42*	.97*	.65*	.70*	.77*	.86*	.90*	.89*	.82*
평균	276	165	297	395	323	236	318	320	279	229	276
표준편차	.91	.42	.85	.86	1.06	1.08	.82	1.07	1.07	1.07	.93

** $p<.01$

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불안을 종속변인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를 독립변인으로 두었다. 두 독립변인간 VIF 값이 1.49로 5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beta=.25, p<.001$)과 과보호($\beta=.26, p<.001$) 모두 시험불안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험불안에 대한 설명량은 20%였다($F=71.55, p<.001$). 이는 성취압력과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은 시험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부모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R^2	F	VIF
시험불안(전체)	성취압력(전체)	.23	.04	.25***	.20	71.55***	1.49
	과보호(전체)	.52	.09	.26***			

*** $p<.001$

<표 3>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의 두 맥락인 시험준비불안과 시험도중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불안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를 독립변인으로 두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업성취압력은 시험도중불안($\beta=.19, p<.001$)보다 시험준비불안($\beta=.29, p<.001$)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시험준비불안의 하위 요인 중 인지($\beta=.34, p<.0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성취를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지 않은 실패와 평가에 대한 걱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보호는 시험준비불안($\beta=.19, p<.001$)보다 시험도중불안($\beta=.30, p<.001$)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시험도중불안의 하위 요인 중 심체($\beta=.31, p<.0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은 시험도중에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험 장면에서 불안으로 인한 신체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험 준비상황에서 높은 불안을 지각하는 여고생들은 과보호보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험 도중상황에서 높은 불안을 지각하는 여고생들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보다 과보호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부모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준비불안과 시험도중불안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R</i> ²	<i>F</i>	
시험준비	인지	성취압력(전체)	.32	.05	.34***	.12	39.77***
		과보호(전체)	.05	.10	.02		
불안	정의	성취압력(전체)	.34	.06	.29***	.14	45.23***
		과보호(전체)	.31	.12	.12**		
불안	심체	성취압력(전체)	.12	.06	.10**	.13	43.11***
		과보호(전체)	.75	.12	.29***		
불안	전체	성취압력(전체)	.26	.04	.29***	.18	62.03***
		과보호(전체)	.37	.09	.19***		
시험도중	인지	성취압력(전체)	.23	.06	.20***	.16	52.94***
		과보호(전체)	.64	.12	.25***		
불안	정의	성취압력(전체)	.27	.06	.23***	.18	60.70***
		과보호(전체)	.61	.12	.24***		
불안	심체	성취압력(전체)	.09	.58	.08**	.13	42.14***
		과보호(전체)	.79	.12	.31***		
불안	전체	성취압력(전체)	.20	.05	.19***	.20	70.86***
		과보호(전체)	.68	.10	.30***		

p*<.05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 1, 2, 3학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환경 변인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하는데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의 불안과 시험도중에서의 불안, 이렇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국면에 따른 연구가 진행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다차원으로 구성된 하위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는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고생들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시험불안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험불안의 생성 및 지속에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들(김문주, 이혜성, 1991; 노원경, 2003; 노정림, 2006; 방숙진, 2010; 이명주, 2010; 정종희, 정

현희, 이귀숙 2009; 조진희, 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학습참여 행동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라고 지각하면 시험불안이 감소되었다는 강선모와 심혜숙(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여고생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라고 지각하는지,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이라고 지각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부모 상담 장면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의 필요성과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학업성취압력적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양육행동의 수정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고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역시 시험준비불안과 시험도중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험불안의 하위 요인 중 심체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는 정은영(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여고생의 시험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부모가 자각하도록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시험도중불안 보다 시험준비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험준비불안의 하위 요인 중 인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인지적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정의적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세진(201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여고생들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험상황과 결과에 대한 실패를 걱정하거나, 학업이나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여고생이 보고하는 시험불안 발생 시점과 시험불안의 요소를 구분하여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발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평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담 개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과보호는 시험준비불안 보다 시험도중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험도중불안의 하위 요인 중 심체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잉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여고생들은 시험상황에서 초조함과 긴장, 불안 등을 느끼거나 자율신경계통과 관련된 신체적 측면의 혐오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증상의 발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김현진(200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여고생들은 의존적 성향이 높아서 문제해결에 대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문제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리적 증상이나 행동적 증상으로 발현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불안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서 문제해결능력이 감소된다는 장혜정(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시험도중에 발생하는 여고생들의 심체적 불안증상의 원인을 인지적으로 자각하고 낮추기 위한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대도시라도 서울과 타지방의 대도시의 사회적 환경이 같지 않으므로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과는 더욱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과보호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나누어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을 야기하는 다양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학업성취와 과보호라는 두 가지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각 변인의 하위요인의 인과적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구조방식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각 변인과 변인에 따른 하위 변인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선모, 심혜숙(2010).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부모학습관여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827-1840.
- 강영철(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도균(2001). 여고생의 학업부정행위 경향성에 대한 원인 및 시험불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김문주, 이해성(199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32-45.
- 김세진(201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자아존중감과 시험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숙(1990). 한국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시험불안도의 추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현진(2006). 무용/동작치료가 여고생들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혜영(2000).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희진(2009).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노원경(2003). 중학생의 시험불안 영향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노정애(1994).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문적 자아개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치경, 황성훈(2013). 고교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학업자아개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3), 55-77.
- 박나래, 정익중(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사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 139-164.
- 박병기, 임신일(2010). 시험불안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4(4), 875-894.
- 박병기, 임신일, 김어진(2008). 시험불안의 재개념화에 의한 척도개발 및 요인구조 탐색. **교육심리연구**, 22(1), 87-109.
- 박수자(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의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아청(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 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3), 37-59.
- 박지현(2006). 시험불안이 높은 여고생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재현(200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취압력 및 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지향성 간 인과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방숙진(2010).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청소년의 시험불안 및 정신적 안녕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민정(2014).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부정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성은모, 오현석, 최윤미, 주지현(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서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성종호, 이영식, 이길홍(1999).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신경정신의학**, 150, 571-582.
- 송동호(1999). 한국 및 러시아 한국계 청소년 우울증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횡문화 비교 연구. **신경정신의학회**, 152, 944-955.
- 송지은(2015). 부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특성불안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태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민진(2009).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심종욱(201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우엽(1995). 시험불안이 학습과 시험단계에서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3(1), 77-93.
- 양미선, 권정임, 양연숙(2010).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효능감. **자연과학**, 2(1), 15-32.
-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2009). 부모의 학업적 성취압력과 청소년 자녀의 시험불안 간 관계: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및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4), 209-237.
- 이유미(201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유미, 정주리(2015).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교육연구, 38, 57-75.

- 이은영, 현명호(2011). 청소년의 시험불안 감소를 위한 MBSR과 REBT의 효과. **한국청소년학회지: 청소년학연구**, 18(11), 165-184.
- 이재연(1987). 시험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학생의 불안수준 및 성취도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임신일(2011). 시험불안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장혜정(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정경미, 윤성연(2015). 고등학생용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POS)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1), 1-29
- 정미경(2000). 시험불안 감소훈련이 시험불안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아현, 강민주(2014). 완벽주의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5(1), 61-76.
- 정은영(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조수용(2015). 대학생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2009).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6(3), 377-393.
- 정채숙(200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아존중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조진희(1998).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형운(2013).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수험생 자녀의 자아분화, 성취압력 지각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길선(2011). 타로를 활용한 개인상담이 여고생의 시험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추상엽, 임성문(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 조절효과. **한국청소년학회지,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최미라(2004). 고등학생의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 및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혜정(2007). 고3 수험생의 시험불안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성적의 상관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표경선, 안도희(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부모양육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모형. *아동교육*, 15(2), 211-227.
- 홍은자(2002).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교육논총*, 12, 137-146.
- 황상미, 정현희(2012).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1-20.
- Bögels, S. M., & van Melick,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port, parent self-report, and partner report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anxiety in children and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8), 1583-1596.
- Brakel, A. M., Muris, P., Bögels, S. M., & Thomassen, C. (2006). A multifactorial model for the etiology of anxiety in non-clinical adolescents: Main and interactiv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attachment and parental rear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5), 569-579.
- Gregory J. C., & Samantha S. B. (2006). *Addressing test anxiety in a high-stakes environment*. America: Corwin.
- Levy, D. (1929). A method of integrating physical and psychiatric examination with special studies of body interest, over - protection, response to growth, and sex differenc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86, 121-194.
- Levy, D. (1931). Maternal overprotection and rejection.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25, 886-889.
- Levy, D. (1943). Maternal overprote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uk, USA.
- Nelson, L. J., Padilla-Walker, L. M., & Nielson, M. G. (2015). Is hovering smothering or loving? An examination of parental warmth as a moderator of relation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emerging adults' indices of adjustment. *Emerging Adulthood*, 3(4), 282-285.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Grune & Stratton, Inc.
- Symonds, P. M.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논문접수 2016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6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8월 5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7일

* 한정규: 부산가톨릭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박사과정중에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BK플러스 사업단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 E-mail: hanclan@empal.com

Abstract

Influence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Overprotective Attitudes on the Test Anxiety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Han, Jeong-Gyu**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overprotective attitudes on two contexts, test-preparation and test-taking, in the test anxiety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568 high school female students 1st grade through 3rd recruited from four high schools in Busan,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ARTS(Anxiety Responses in Testing Scale)', 'The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cale', 'The Overprotection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that both of the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the overprotec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test anxiety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Second, the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influenced on test-preparation anxiety more than test-taking anxiety. Particularly, high school female perceived highly cognition which is a sub-factor of the test-preparation anxiety. Third, the parents' overprotection influenced on test-taking anxiety more than test-preparation. Particularly, high school female felt highly somatic symptoms which is a sub-factor of the test-taking anxiety. Late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high school female students, test anxiety,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verprotection

* This study is reconstituted article from Han, Jeong-Gyu's master's thesis(2014)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BK Plus Future Education Design Research Team in Pusan National University